

아산 서평 모임, 제10회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만주 모던, 식민지 근대화의 우회로 또는 발전국가의 무덤¹⁾

왕혜숙(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본 원고는 “아산 서평 모임”의 취지에 맞게 서평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저서만큼이나 흥미진진하고 치열했던 10회 아산 서평 모임 현장의 분위기도 함께 담아내고자 르포타주 형식을 따르기로 한다. 세 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던 저자와 토론자들 사이의 열띤 토론에 대한 작성자 나름의 관전평 정도로 읽히기를 바란다. 물론 형식은 르포타주이지만, 인용된 문장 외에 본고에 기술된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에 강하게 개입된 것일 수밖에 없다.

500쪽이 넘는 묵직한 책을 손에 잡는 순간, 윤해동 교수가 토론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한 본서의 의미를 체감하게 된다. ‘세계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만주 연구의 학문적 불을 선도해 온 저자가 15년 동안 집필한 노작이자 역작.’ 이미 그 무게감은 본서에서 저자가 안내할 학문적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 긴 여정은 의외로 만주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 그것도 부산에서 시작된다. 이후 1930년대 만주를 거쳐 최종 종착지인 1960년대 한국에서 마무리된다. 마치 문화기술지 또는 여행기록문과도 같은 저서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은 한석정 교수의 『만주 모던』 그리고 10회 아산 서평 모임의 참석자들을 흥분시켰던 두 가지 핵심 논의, 즉 ‘식민지 근대화론’과 ‘한국의 재건체제 및 발전국가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이어나가하고자 한다.

만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주국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다. 즉위식을 위해 만들어진 급조된 무대 위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오른다. 군중이라고는 박수부대로 동원된 소수의 만주인들, 대부분은 일본의 군관료들이다. 저 멀리 배경으로는 산업시설로 추정되는 건물들의 모습이 산등성이 그림자 마냥 희미하게 자리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마지막 황제]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괴뢰국이라는 명

1) 본 서평을 쓰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유부원, 김소연, 지상빈, 박수빈, 하경희, 김진영, 김홍식, 이상욱 학생은 본서에 대한 유의미한 논평을 제시해주었다.

칭이 내포하고 있듯이, 만주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과 식민지적 팽창 야욕에 의해 세워졌으며, 오직 대륙 진출을 위한 통로나 병참기지로 기능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점령한 지역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의 틀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였다. 모든 이미지들은 이 짧은 장면에 하나하나의 미장센으로 정밀하게 구현되어 배치되어 있다.

이와 연결되어, 만주는 제국의 주변부로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후 세워진 만주국, 그 어떤 주권도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못했던 부정부지역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는 항일무장투쟁이 가능했던 독립운동의 성지로 신격화된 공간, 항일-반제국주의이라는 목표하에 중국-조선의 합작이 모색되던 곳이다. 이범석의 자서전 “우등불”(1971)과 같이 만주를 배경으로 한 항일 영웅 서사는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압축적으로 대변한다.²⁾

저자가 안내하는 만주로의 첫 여정은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이미지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 먼저 저자는 만주의 첫 번째 이미지에 수정을 가한다. 만주국을 단순히 괴뢰국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저자는 3장의 전반부를 통해 초기 만주국의 건국 과정, 그리고 건국 초기의 국가성격을 통해 만주국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초기 만주국이 가졌던 독자성, 자율성에 주목한다. 먼저 건국 과정을 보면, 만주국은 종교적 이상주의에 물들고 정치화된 관동군 청년 장교들이 사령관이나 육군 본부의 명령 없이 감행한 단독거사인 만주사변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이다. 또한 건국 초기 표방했던 독립국 형식은 관동군 지도자들이 본국의 명령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관동군은 만주를 일본 본국도 관여할 수 없는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하였다.³⁾

동시에 관동군은 일본 본국에 저항하면서도 일본을 모방하였다. 만주국은 식민지,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만들어진 식민지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일본의 (식민) 행정 조직을 상당부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나 후발주자로서의 변용 역시 발생했다. 이러한 변용은 만주라는 물리적, 제도적 조건 덕분인 동시에 관동군 수뇌부들의 근대에 대한 이상 때문이기도 했다. 강력한 자이바쯔, 보수적인 정치관료들 등 아직 사라지지 않은 봉건적 요소들이 제도적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는 본국과 달리, 만주는 관동군 수뇌부가 감히 실현해보지 못했던 과감한 계획들과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토였다.⁴⁾ 동시에 만주에서는 소장파 군부들의 근대에 대한 이상-오족협화라는 동아시아의 단합,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그리고 일본 본국으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만주국은 일본을 모방하면서도 이를 비틀어 변용하여, 독특한 만주만의 에토스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유교 이념, 침투적 규제국가의 틀, 계획경제 체제, 강력한 정부 주도성, 국방국가 만주국의 총력전이다.

이러한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은 전작인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 효과 1932-1936』(2007년 개정판, 동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이미 주장된 바 있다. 요약해보면 1932년부터 1936년까지의 만주국은 군부 엘리트들의 근대를 향한 모험적 시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초기의 성격은 이후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괴뢰국으로 변모된다. 그러나 초기에 한정해서 본다면, 만주국은 분명 군부 엘리트들이 꿈꾸었던 근대의 비전을 모태로 건국되었다.

2)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이후 ‘본서’로 언급), 132쪽.

3) 본서, 159쪽.

4) 본서, 175쪽.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끝난다면 저서는 전작의 단순한 요약판에 그칠 것이다. 저자는 2장에 걸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화되고 고정된 이미지를 넘어서, 만주국 그리고 만주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지경을 보여준다. 전작에서 주로 “국가효과”라는 측면에서 만주국을 바라보느라 담아내지 못한 1930년대 만주 또는 만주가 확산시킨 근대적 충격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관찰을 2장에서 유감없이 쏟아내고 있다. 전작에 비유한다면, “만주국 건국의 문화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저자는 1930년대 만주라는 거대한 신천지가 조선은 물론 일본에 퍼트린 열병을 보여준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부산이다. 부산에 만철이 건설되면서, 만주라는 새로 창출된 주변부로 가려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행렬로 부산항은 북적인다. 이 시기 부산은 일본과 조선, 대륙을 잇는 세계적인 항구, 국제도시로 부상한다. 부산을 통해 전파된 만주의 흡인력은 가히 폭발적인 것이었다. 만주를 기회의 땅으로 여긴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식인, 문인, 예술인들, 여성들, 그리고 “만몽 신천지를 동경하거나 마적을 지원하려는 가출소년 등 만주병 환자와 모험왕”이 속출하였다.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이주행렬 역시 줄을 이었다는 것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가 단순히 식민지배에 대한 도피가 아님을 말해준다. 만주는 조선 식민지 내부의 지리적, 전통적 위계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경성(서울)-부산(지방)의 관계를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부산(피식민)-일본(식민) 사이의 관계 역시 변화하였다. 만몽의 매개역할을 했던 후산 닛포(부산일보)의 당시 기사들에서, 독자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꾸었던 만몽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독자들은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들과 함께 특급열차 노조미를 타고 만주로 이동한다. 도착한 만주라는 공간에 펼쳐지는 광경 역시 항일투쟁의 성지라는 두 번째 이미지와는 판판이다. 저자가 만주의 특이성으로 꼽는 것은 ‘융합’이다. 이 공간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일본인, 조선인 이외에도 오로첸족, 다우르족 등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공존하며 뒤섞여 살던 곳이다. 따라서 만주의 문화 역시 불가피하게 융합적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인종, 민족적 융합만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부족문화들의 융합은 물론 서구와 동양의 토착화의 실험도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서구풍의 노래장르와 아시아적 정서가 접목되면서 만주만의 독특한 음악장르가 탄생한다.

만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은 특히 저자가 공들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궁핍과 박탈감을 노래한 운동주부터 만주 웨스턴의 남성적 낭만에 대한 추구, 자유연애소설까지 다양한 문학 장르들의 공존. 자유연애와 같은 서구적 문물, 이국적 정서에 대한 탐닉, “꽃피는 북만선”과 같은 개척과 모험의 찬가부터 유랑민들의 보헤미안 랩소디, 서글픈 가사와 경쾌한 곡조가 결합된 실향노래까지 다양한 장르들의 노래들의 유행. 이러한 만주의 독특한 문화 융합성은 만주가 단순히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적 수탈의 증거가 아니라, 전근대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의 공간인 동시에 탈출구, 도피의 공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주는 유토피아는 아닐지라도 일종의 엘도라도였다.

왜 만주인가?

저자는 서평 모임에서 밝혔듯이, “친일 시비로 온 나라가 비등하는, 한국사회의 인화성 주제인 식민주의와 대면, 객관적 평가를 시도”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친일과 항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의 탈피하여, 만주를 다시 보도록 요구한다. 2, 3장에 걸쳐 제시된 만주에 대한 다양한 단상들은 독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만주국이 허울뿐인, 실체 없는 국가가 아

니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조선인들은 단순히 착취에 내몰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주했다? 만주가 추동한 근대적 충격은 단순한 이식이 아니었다? 독자들은 심각한 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혼란을 만들어낸 것은 그의 저서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만주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 또는 만주를 한국의 근대화에서 지워버린 망각의 역사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이다. 그는 이러한 친일-항일, 식민지 수탈-식민지 근대화 양극화된 시각을 탈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올바르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시각으로 굳이 “만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새로운 만주 독법은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 그의 새로운 만주 독법은 두 가지 거리 두기로 이어진다. 첫 번째는 일본-만주 사이의 거리두기이다. 저자는 일본 본국과 만주국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만주와 일본의 거리두기는 자연스럽게 만주에서의 일제 식민지 경험과 조선에서의 일제 식민지 경험 사이의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그는 만주국과 일본을 차별화시키는 결정적 증거를 국가에서 찾는다. 다음 인용문은 아산 서평 모임에서 저자의 발언 가운데 일부이다(볼드 강조는 필자).

한석정: 저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다룬 게 아니라 시선을 국가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국가가 행하는 동원 방식에 있어서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주국에서는 1년에 30~50차례 시민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사 전공자들은 한국을 unique한 케이스로 보고, 조선인들이 겪었던 비극을 세계 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식민지 조선보다 만주국의 비극이 더 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제’라는 것을 한 덩어리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제국’ 또한 범위가 광대합니다.**

이렇듯 그는 “조선”에서의 식민지 경험과 “만주”에서의 식민지 경험을 차별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1930년대 식민주의에 대한 수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책에 열거된 1930년대 식민지배하의 조선인들 또는 이후 재건체제 및 발전국가의 핵심적 엘리트들은 만주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한 것인가? 이후에 한국의 근대화 모델로 수용되었을 정도로 강렬한 각인을 남긴 만주 경험이란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만주에서 경험한 것이 단순히 수탈과 억압뿐이었다면, 즉, 한반도에서의 식민지배의 연장이었다면, 이 경험이 이후 소환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근대를 또는 근대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인가. 이러한 무수한 질문과 의심들을 하다보면, 독자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식민 경험과 만주에서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설득된다.

이렇게 저자의 설명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만주를 향하게 될 때, 조선에서의 식민 경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와 직결된 식민지 수탈-식민지 근대화와 관련된 논쟁은 불필요해진다. 이후에 주장될 것이지만, 우리의 근대화 모델이 식민지 조선이 아니라 만주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근대화 모델이 일제 식민지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즉 식민지 근대화론의 불편한 진실을 굳이 마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주국과 일본 식민모국은 같은 존재가 아니며, 게다가 수탈과 근대로의 정체(또는 왜곡)만으로 점철된 일제치하의 조선과 달리, 근대가 펼쳐진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생채기 내왔던 민족주의적 자존심의 상처 없이 과거 역사를 홀가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

결국 저자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경직된 민족주의적 프레임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으킬 수 있는 불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가는 동시에, 일본 식민주의를 마주보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자는 만주국이라는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1930년대 만주-1960년대 한국의 연결고리

여기까지는 1930년대 이야기이며, 구성상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930년대 만주로의 긴 여행의 귀착지는 결국 1960년대 또는 지금의 한국이다. 후반부는 시공간을 넘어 1960년대 한국을 무대로 시작한다. 사실 본 저서는 만주 자체보다는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식민주의와 근대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 소기의 목적이며, 3장부터 7장까지의 더욱 많은 여정은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에 침윤된 만주국의 건국 에토스를 찾는 작업에 할애된다. 저자는 조선이나 일본 본국이 아닌 만주를 통해 학습된 근대적 에토스가 1960년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의 재건체제로서 발현되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발전국가 혹은 개발 체제 논의가 놓친 역사적 맥락, 즉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만주국의 존재를 상기시킨다.⁵⁾

여기서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에서 부활한 만주국의 에토스란, 전통적인 유교 이념, 침투적 규제국가, 강력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 폭력적인 남성성의 국방국가와 총력전을 목표로 한 파시즘적 동원 체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냉전 체제 하에 전개된 남북 체제 경쟁 때문이었다. 냉전의 전개는 국방국가 만주국의 총력전, 즉 국가 통제 하에 물질적, 정치적, 과학적, 문화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 전 사회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과거 만주 관동군이 주도한 급속한 산업화, 건설, 사회동원은 재건체제의 모델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앞서 장황하게 묘사한 193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저자는 “재만 조선인”이라 불리는 다양한 이주경로, 다양한 계층적 지위를 가지고 만주를 경험한 일군의 집단을 바로 이질적인 두 시간대, 이질적인 두 지역을 연결하면서, 만주의 근대 모델과 만주 에토스를 1960년대 한국에 입력한 행위자들로 지목한다. 해방과 귀환 과정을 통해서 1947년 7월까지 재만 조선인의 40%가 귀국한다. 커밍스는 식민지배 하에서 “토지를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한국 내전으로 치닫게 될 변혁, 항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들은 단순히 착취와 수탈에 이주 당한 이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근대적 삶의 기회를 찾아, 또는 이국적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등 여러 동기를 가지고 만주를 경험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농업 부문의 프롤레타리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들 만주 귀환자 대부분은 항쟁 혹은 내전의 자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⁶⁾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들은 1960년대 재건체제의 핵심 인적 자원들이 된다. 이들의 만주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이후 발전국가가 만주 모던을 이식 및 변용하며 재건체제를

5) 본서, 167쪽.

6) 본서, 155쪽.

구성해나가는 핵심적 자원이 된다. 특히 1960년대 재건체제의 핵심 군부 세력들은 만주와 유사하게 이중의 쿠데타라는 건국과정 및 배경조건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으로는 국방국가, 총력전을 위한 동원 체제, 경제적으로 국가주도 계획개발과 건설, 문화적으로 새마을운동, 문화적 총동원, 신체의 각성(체력은 국력, 재건체조) 등과 같은 파시즘적 동원 체제를 구축해나간 주요 행위자들이 된다.

이러한 저자의 설명은 마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양자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 테제를 상기시킨다. 유럽 프로테스탄트들의 에토스는 정작 유럽이 아닌, 제도적 진공상태라 할 수 있는 신대륙에 건너와서야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재현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지속된 개입과 곧 본격화된 전쟁으로 인해 만개하지 못한 만주 에토스는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에서 실현된다. 즉 만주 에토스가 1960년대 한국사회의 제도적 조건들과 결합되면서 재건체제로 발현된 것이다. 막스 베버의 페르소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었다면, 박정희는 저자의 페르소나인 셈이다.⁷⁾

이러한 저자의 설명은 발전국가의 기원에 대한 일련의 논쟁에 대한 그만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발전국가의 기원 또는 성공의 요인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소로서 ‘강한 국가’의 성격에 주목하였다(Johnson, 1982; Wade, 1990; 국민호, 1999; 김일영, 2003).⁸⁾ 문제는 사회를 압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한국의 강한 국가가 어디서 기인했는가에 대해 각자의 대답이 달랐다는 점이다. 일부는 단절론의 입장에서 제도적 개혁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고(Shin and Chang, 2003; Chibber, 1999; Chang, 2006), 또 일부는 연속론의 입장에서 유교 전통(Lew, 2013)이나 일본의 식민지적 유제(Kohli, 2003)와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저자는 “1960년대 사회 위에 우뚝 솟은 국가가 처음 나타난 돌출의 시점”에 대한 의문을 과거로부터 찾는다라는 점에서 연속성의 입장을 취하지만, 그는 이러한 식민지 유제를 식민지 조선이 아니라 만주에서 찾는다.

흥미로운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대표적 해외 학자라 할 수 있는 에커트 역시 최근(2016년 11월) 유사한 논지의 책을 출판했다는 점이다.⁹⁾ 에커트는 박정희와 그의 핵심 군부 세력들의 만주군관학교 경험을 강조하며, 여기서 이들은 일본군국주의의 핵심적 에토스들, 예를 들면, 목표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당화, 권위에 대한 복종, 군사적 위계문화

7) 굳이 박정희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건체제의 쟁점에 박정희가 있었을 뿐이고, 만주군관 출신의 군부체제의 핵심인물들은 물론, 사학자 이선근, 소설가 이기영, 건국대학교의 유석창 등 모두가 만주 에토스를 재현한 재건체제의 하나하나 살아있는 세포들이다.

8) 반면, 강한 국가의 일방적인 동원과 계획보다 ‘강한 사회’의 내부적 역량(Lew, 2013), ‘시장’(민간 기업)의 역량(조동성 외, 2003; 좌승희, 2006)을 강조하는 입장들 역시 존재한다. 이에 반해, 국제적인 요인들에 더욱 주목하는 연구들로, 미국 중심의 냉전논리에 따른 수혜론(Mason et al., 1980: 47; Koo, 1987: 169; Woo-Cumings, 1999; 윤상우, 2006), 일본시장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연구(Chibber, 2003) 등이 있다.

9) 에커트는 박정희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살아있는 유산으로 평가한 바 있다(전상인, 1998: 131). 특히 최근 발간한 책에서, 그는 박정희의 근대화 체제(modernization regime)의 네 가지 지향을 개입(intervention), 통제(regulation), 발전(development), 규율(discipline)로 정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첫 번째 개입 지향은 군부가 위기에 빠진 정치체계에 개입할 권리인 동시에 책무를 지닌다는 군사주의적 신념이라고 규정한다. 그 외에도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지, 총력전 사상(Total War ideology) 등은 만주 군관학교에서의 교육 및 체류과정에서 학습한 것이라 주장한다(Eckert, 2016: 217).

등을 내면화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듯 만주에서 학습된 멘탈리티는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고스란히 옮겨진다.

저자와 에커트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단순히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자는 몇 가지 논지에서 더욱 진일보한 주장을 펼친다. 첫 번째로, 에커트는 만주국을 일본의 제국주의의 일부분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에 개입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를 연속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저자는 만주국과 일본 본국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또한 만주국 초기와 후기(1937년 이후)의 성격에 있어서도 단절을 지적한다. 즉, 저자는 식민지의 다양성, 내부적 변이에 더욱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에토스의 원형 그대로를 관찰하고자 전략적으로 관찰 시기를 한정한다. 저자는 14년간의 만주 체제를 단일한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⁰⁾ 따라서 전작에서 저자는 만주 에토스의 원형을 보기 위해 1930년대, 그것도 1932년-1936년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만주의 건국 에토스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박정희 재임기인 18년의 기간을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¹¹⁾ 따라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차별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만주 에토스의 재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기로 1960년대를 관찰의 범위로 한정한다. 서평모임에서도 저자가 밝혔듯이, 본 저서는 박정희 체제라는 개발독재가 아니라 1960년대 강력한 국가의 등장 배경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한 에토스의 기원을 다룬다. 그가 정권 구분 개념으로서 박정희 체제, 정치경제학적으로 발전국가라는 용어보다 “재건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시기적 구분뿐만 아니라, 그 초기의 원형에 초점을 둔 저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사회 위에 우뚝 솟은 국가가 처음 나타난 돌출의 시점” 또는 저자가 인용한 페리 앤더슨의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시간대”가 바로 동아시아에서는 1930년대 그리고 한국에서는 1960년대인 것이다.¹²⁾

물론 이러한 저자의 설명은 193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을 나이브하게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아산 서평 모임에서 토론자 및 여러 참여자들이 가장 비판적으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한다. 정주연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저자는 매력적인 내러티브로써 30년대 만주국의 경험과 60년대 한국의 경험을 ‘닮은 그림’으로 제시하지만, 그림 A가 그림 B로 어떻게 전과, 확산, 혹은 전이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빈약”해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재건체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과정과 정책적 선택들을 통해서 만주 모던이라는 에토스로부터 발현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는다. 책의 목적도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193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삽화들의 방대함에 가려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저자는 나름의 행위자와 제도적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두 시공간의 문화적 상동성을 만들어낸 행위자 집단을 특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1930년대 만주를 1960년대 한국에 소환하여 재건체제로 빚어낸 행위자 집단을 만주를 경험한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한 모방의 주체를 찾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을 연결시키며 생길 수 있는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저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만주 모던의 에토스가 1960년대 한반도 남단에 재현될 수 있었던 이유로,

10) 본서, 167쪽.

11) 본서, 49쪽

12) 본서, 79쪽.

냉전 하에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제시한다. 이는 특히 과거 만주국의 총력전을 재료로 한국방국가가 한국의 군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소환, 재현되는 배경이 된다.

더불어 저자는 한국의 재건체제가 비단 오롯이 만주로부터 기인했다는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재건체제가 세 가지 재료로 이루어졌다고 밝힌다. 하나는 ‘메이지 국가 직속의 식민국가, 즉 조선 총독부’이며, 둘째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이 바로 만주국이다. 요약하면, 미군정은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의 틀과 환경을 규정했고, 만주국의 에토스가 내부 동력이 된 것이다.¹³⁾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윤해동 교수, 전상인 교수는 ‘한국의 모더니 결국 만주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기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의 1960년대 체제의 기원으로 또는 그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학계에서 주로 제기되는 많은 변수들, 예를 들면 전통 유교의 유산(유교자본주의론), 일본 모델, 미국 모델의 영향 가운데 유독 만주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특히 전상인 교수는 1950년대 이승만 시기 기용된 ‘미국’ 유학과 중심의 테크노크라트들, 관료들, 행정가들이 한국의 근대화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윤해동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식민지배 경험과 일본의 식민정책들이 각인시킨 이른바 “조선 모던”이 더욱 강력한 재건체제의 소프트웨어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편, 굳이 특정한 하나의 기원 또는 하나의 모델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환원되기에는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1960년대 한국 모더니의 성격은 상당히 보편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윤해동 교수가 지적했듯이, 총력전 체제 혹은 징발 사회의 특성은 국가별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세계대전을 통해 소련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등장한 근대적인 총력전에서도 목도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원을 만주에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자 역시 책에서 언급했듯이, 근대의 추동력 중 하나는 과시즘이었으며 이것은 아시아에서나 유럽에서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그가 만주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진단한 “불도저식 국토개발(자연 경관이나 전통적 건물과 시가지 파괴), 반공대회, 대량 전단 살포, 표어 제작, 주민 점호, 위생 관리 등의 신체를 각성시키고, 일상을 규율하는 국가의 통제기제들”은 과시즘적 동원체제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것은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의 후발 또는 후후발 근대화 주자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또한 공시적으로, 유사한 과시즘적 동원 체제/정책들이 만주 경험이 없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서도 관찰된다면, 1960년대 한국의 과시즘적 동원 체제의 기원을 과연 만주로 고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용보다 모방? 발전국가만의 독자성은?

물론 고리타분하게 순수한 기원을 찾는 훈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분명 우리의 근대는 우리의 근세를 지배했던 그 시기,¹⁴⁾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13) 본서, 178쪽.

14) 저자는 중세과 근대 사이의 “근세”(early modern)이라는 시대 구분 개념을 제시한다(본서, 23쪽). 여기서 근세는 “봉건의 잔존, 종교와 상업의 결합, 상업 자본주의, 국가 형성, 종교개혁 등 근대를 여는 중요한 변혁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기어츠가 말한 pre-takeoff의 시기와 같이 (Geertz, 1963), 전근대적인 잔재들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아직 이를 대체할 뚜렷한 사회질서가 등장하지 않은, 그러나 이후 근대라 불리게 될 특질들이 부정형으로 맹아적으로 산발적으로 움트는

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가 서두에 밝힌 근대화와 모방의 과정에 대한 대안적 시각과 배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평 모임에서 전상인 교수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프레임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그는 1960년대 ‘일부 인사들, 발전 국가 지도자들의 뇌리 속에 만주국이 있었다’는 진술은 다소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따라서 모방이론이나 학습이론 등 이론적 자원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비판한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1장에서 전상인 교수가 제시한 모방론을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바바, 스타인메츠의 모방론을 비판적으로 보며, 후발주자론의 관점에서 만주국과 1960년대 한국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저자는 기존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식민주의에 의한 확산과 후발주자들의 취사선택의 차이를 강조한다. 저자는 식민주의 역사에서 중심 주변부의 관계를 단순히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에 미친 영향을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는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개조하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며, 식민자와 피식민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식민지는 계속해서 지배국을 모방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닳지 않은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다. 저자는 ‘꼭 닳지 않은’ 부분이 지닌 위력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지배국을 닳지 않은(못한) 부분은 단순히 어설픈, 결핍된 부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이다.¹⁵⁾ 이 과정에서 피식민자는 모방과 변용의 모습을 보이는데, 식민자의 답론을 모방하기도 하고 취사선택하기도 하면서 ‘후발주자의 유리함’을 극대화 시킨다. 그 결과, 식민지배의 경험은 변용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식민지배 체제 아래서 문화적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용의 여지를 찾는 작업은 만주국과 일본 본국의 차이를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빛을 발하지만, 만주와 한국의 관계에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즉, 만주국은 일본 본국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용의 여지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거리두기를 하는 반면, 만주와 한국에 대해서는 두 체제의 연속성과 공통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변용”의 여지보다 “모방”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 물론 한국의 재건체제는 1930년대 만주와 분명 비슷하나 꼭 같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 역시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 지도자들이 경직된 일본의 모던을 만주국을 통해 모방하고 변형했다. 한국의 관민합동 총력전은 일본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서술상 그는 불가피하게 만주와 재건체제 사이의 닳은 모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들의 차이점, 변용을 언급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결국, 본 저서의 문제는, 전상인 교수가 제기한 이론의 부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이론적 프레임으로 차용하겠다고 선언한 이론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든지 또는 어느 경우에서 제시한 이론을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사례들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발전국가는 단순히 모방의 주체로서 상징되고, 모방을 통한 변용의 여지, 즉 그가 강조한 “비틀어 꺾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실종되어 버렸다. 그저 “한국은 만주국보다 더욱 신속했다?” 한국의 재건체제 또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어츠가 강조했듯이, 이 시기에 어떤 사회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가는 이후에 전개될 근대화 경로에 강렬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시대 구분 개념을 동아시아에 적용해본다면, 저자는 만주 또는 일제식민지배 시기를 “근세”로, 1960년대 재건체제를 본격적인 “근대”로 구분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5) 본서, 62쪽.

16) 본서, 40쪽.

는 발전국가의 독특성이라고 지적될 만한 것은, 그저 유별난 속도뿐인가? 결국 저자는 1960년대 재건체제 또는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발전국가 체제를 만주에서 기원하고 모방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계보에서 한국의 발전국가만의 독특성을 지워버린 셈이다.

게다가, 저자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보자면, 박정희를 비롯한 재건 체제의 지도자들은 만주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재건체제를 통해 만주 에토스를 재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의식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필연(과거 만주 경험, 냉전, 체제 경쟁 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만주와 군정의 단순한 비교는 당사자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여지를 빼앗고, 역사적 필연성만을 눈앞에 제시한다. 그들이 한 것은 근대화를 위한 만주를 재현이었을 뿐이다. 거기에 개인적 욕망, 도덕적 선택, 미시적 합리성 등은 개입할 여지를 잃는다. 이러한 비교 안에 있는 것은 사건뿐이지, 사람은 없다. 행위자의 실증으로 귀결된다. 더불어, 저자의 의도와 달리, 그의 설명은 마치 근대화를 위한 만주 모델의 가치중립적인 모방으로만 해석되고, 당시에 있었던 탄압과 강압 등의 폭력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남성성, 유교적 가부장 질서의 복원

본서에서 베버를 상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만주 에토스의 한 부분으로서 1960년대 재건체제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 내 유교의 복원이다.¹⁷⁾ 이는 그의 저서가 주장하는 만주와 일본의 차이, 더불어 193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의 공통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유교와 불교보다 국교인 신교를 앞세웠던, 때로는 유교를 탄압하였던 초기 일본 메이지 정부와 달리, 만주국은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격상시켰다. 또한 만주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재건체제는 유교를 복원시켜 재건된 한반도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1960년대 급속도로 근대화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근대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면서도 만주 에토스에 부합하는 ‘한국적인 것’의 발명이 촉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선근과 같은 국방 사학자들에 의해 유교라는 전통의 복원 또는 발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패망 이후 일본에서는 미군정하에 군국주의 남성성이 거세된 반면, 한국에서 강력하게 만주가 구가하였던 남성성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피식민화의 경험과 6.25 전쟁을 통해 상처받은 남성성, 고개 숙인 부권의 재건할 필요성이 한국에서 더욱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유교적 남성성(‘엄부’자모, 군자, 선비 등)보다 더욱 강력한 남성성이 필요했다. 그 결과 소환된 남성성의 모델이 바로 만주 웨스턴이다.

만주 웨스턴이라는 장르는 만주라는 지역에 낭만성을 불어넣었다. 저자는 이러한 남성성이 만주를 민족 항쟁의 성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사회 역시 마초적인 캐릭터들과 그들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만드는 만주의 영웅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남성성이 결여되었던 식민지 시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들은 가장의 부재, 혹은 신제국주의적 존재로부터의 억압 등으로 여성화되었던 사회를 그려냈다.¹⁸⁾ 1960년대 초반 이후 등장

17) 본서, 288-289쪽.

18) 본서, 435쪽.

한 영화들은 남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무너졌던 가정이 남성인 아들로 인해 집안이 '재건'되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러한 남성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화들은 식민지 시절 억압당했던 국가의 남성성을 표출해내는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탈식민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남성성을 드러내는 스포츠들, 국력화된 개인들의 경쟁이라 할 수 있는 국제운동경기들은 상처받은 남성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 시뮬레이션 장치로 기능하며, 내셔널리즘은 물론 문화적 남성성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상은 여성주의 시각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부계전통이 강화되는 과정에 대한 양현아 교수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두 학자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 전통보다 더욱 강화된 가부장제가 사회 곳곳에서 부활하였다는 동일한 상황진단을 보인다. 문제는 두 학자가 그 기원을 다르게 찾는다는 점이다. 양현아는 이러한 남성성의 복원은 이미 1950년대 제헌국회에서 목도되며, 일군의 전통존중론 관점의 관료, 학자들에 의해 가부장제에 대한 회귀와 전통의 재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¹⁹⁾ 반면, 저자는 남성성의 복원을 만주 에토스에 영향을 받은 1960년대 군부집단들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이는 다시 앞선 논의, 즉 한국의 재건체제의 기원을 만주에서 찾는 작업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음을 제기한다.

책을 관통하는 빛나는 규지(窺知): 회색지대에 조명을 비추다.

저자는 식민주의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앞서 식민지 시기 전체를 암흑으로 혹은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자 했던 전래의 이분법을 넘어 드넓은 “회색지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 만주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조선인들의 삶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만주라는 공간을 항일-친일이라는 거대 담론, 민족담론에 개인이 압도당하고 질식당한 공간이 아니라, 개인이 생존을 위해 일상을 살아가던 공간으로 비춘다. 이러한 저자의 관점은 윤해동 교수가 언급한 ‘식민지 공공성’의 존재에 대한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윤해동 교수는 식민지 조선에도 식민 국가와 구별되는 하나의 ‘사회’가 존재했으며, 그 근거로 1920년대에 등장한 라디오나 초기 조선 영화에서 조선인들의 독자적 영역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한다. 식민지라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선인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이 영역에서 근대화의 원동력을 찾는 작업이다. 저자는 이러한 근대화의 에토스를 만주라는 공간에서 찾는 것이다.

저자의 회색지대에 대한 조명작업은 비단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의 근대화 또는 발전국가 체제를 바라보는 그의 독자적인 시각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회색지대 속의 개인들의 역할이 빛나는 것은 1960년대에 대한 서술이다. 서평 모임에서 전상진 교수는 ‘왜 만주의 30년대가 60년대 한국에서 반복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만주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60년대 한국의 지도자급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다소 단순한 대답으로 읽힌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저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저자는 오히려 1960년대 한국 재건체제를 단순히 위로부터의 주조과정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앞서 저자는 만주라는 공간의 다양성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을 한 바 있다. 만주에는 비적의 습격과 혹한의 생태계에서 역척갈

19) 양현아, 2011. 특히 6장 참조.

이 농토를 일군 개척 농민들, 만주국 하급 관리와 장교, 중소기업인, 아편장수까지 별별 조선인들이 존재했다. 해방 당시 이러한 재만 조선인 인구는 약 2백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만주에서 “노동을 통한 갱생과 개척”을 내면화한 이후 해방 이후 귀환하여 한국 재건체제의 동력이 된다. 즉, 단순히 “지도자급” 아니라 이들 모두가 만주 에토스를 체득한 재건체제의 전도사가 된다. 이는 저자와 에커트가 차별화되는 두 번째 지점이기도 하다.²⁰⁾ 에커트는 1960년대 재건체제의 국방주의, 군사주의 에토스의 재현의 주체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정치엘리트들에만 주목한 반면, 저자는 더 포괄적으로 만주 에토스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담지한 주체들로서 재만 조선인 집단의 다양성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이들은 귀환 이후 다양한 계급, 계층, 지위에서 하나하나 만주 에토스를 재현하는 재건체제의 세포들이 된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작동했던 발전국가의 위로부터의 동원 과정과 아래로부터의 근대에 대한 열망을 함께 보도록 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5·16 이후 군사국가의 출현은 피지배층에 대한 억압 또는 동원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그 성격이 압축될 수 없다. 한국의 군정은 ‘의외로’ 저항 없이 국가발전을 추동할 수 있었다. 만주국 시대와 유사하게 작은 폭력(양아치, 폭력배)을 공개적 처형하고 노동 현장으로 차출했던 큰 폭력의 등장에 대해, 대중들은 오히려 크게 호응했다. 저자는 1960년대를 “국가가 선도하고 다수 국민이 호응한 근면 검소 자립의 시대”라고 정리한다.²¹⁾

물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협력은 분명 시각에 따라 과시증적 동원체제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서평의 필자로서의 자율적 해석의 권한을 활용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1960년대 한국사회의 아래로부터의 열렬한 환호는 단순한 문화공작의 결과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전반부의 저자의 설명은 더욱 다양한 인과성의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오히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적극적 협력은, 또다른 만주 에토스의 증거이다. 만주 에토스를 체화한 재만 조선인은 해방과 귀환 이후 정치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 스며들었다. 재건체제의 정점에 있었던 만주군관 출신의 군부 외에도, 만주 웨스턴을 생산한 예술인들, 새마을운동에 호응했던 농민들까지 이들 모두가 재건체제를 만주 에토스에 배태시킨 행위자들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만주 에토스에 배태된 사회는 박정희의 재건체제보다 선행했으며, 동시에 이들의 존재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만주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폭력적 남성성으로 무장한 국방국가를 가능케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모방과 변용은 박정희를 위시로 한 일련의 정치지도자 집단들로부터 주도된 것인 동시에 아래로부터도 이루어진 과정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요구 또는 힘이 없었더라면, 1970년대 이후 발전국가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에도, 근면, 속도에 대한 강박과 같은 유별난 근대적 에토스들이 한국인들의 문화적 DNA로 자리 잡아 여전히 한국사회 구석구석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저자는 식민자-피식민자 관계의 단선적 설명뿐만 아니라 지배층-피지배층이라는 국민국가 내부 관계에서의 단선적 설명 또한 거부한다.

새로운 서사의 모형

20) 첫 번째 차이점은 6쪽에 설명되어 있다.

21) 본서, 259쪽.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본 저서의 낯선 글쓰기 방식이다. 그는 서평모임에서 본서는 “하나의 글쓰기 실험”이었다고 밝힌다. 이러한 실험은 “경계가 무너지는 탈구조주의의 시기의 사회과학을 역사사회나 인문학과 교류시키고 싶은” 저자의 의도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학의 인과 분석적 모델과 이념적 구도를 지양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 쉬운 방식으로 쓰기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독자들을 만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사회학자들의 리그는 추상적인 논의만 이뤄지며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저자 나름의 묘안인 셈이다.

저자의 “실험”에 더욱 정확한 설명과 의도는 1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는 1장에서 저서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푸코가 제안한 인과적 역사(총체적이고 일관된 역사)가 아닌 효과적 역사 서술 방식에 기대어, “거룩한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패턴과 우연, 시차, 다양한 문화 장르를 넘나들” 것이라고 예고한다.²²⁾ 이러한 저자의 글쓰기 방식은 단순히 새로운 스타일의 서술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에 대한 저자만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즉 그는 “경직된 인과성”을 내려놓고 1930~4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을 파노라마로 전개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한 단면, 즉 재건 체제의 형성과 그 역사적 뿌리에 대한 고찰이다. 그 당시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특히 문서를 숭배하는 수준의 일부 역사학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모든 주장의 단계마다 문서적 뒷받침을 요구하거나 문서 이외의 사실은 일절 믿지 않을 경우, 영국의 위대한 사학자 콜링우드(1902-1993)가 말한 “역사적 상상력”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1930, 40년대 만주 모던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심적 성향을 유추하거나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저자의 말처럼 자료의 (일시적) 망실과 역사의 부재는 다르다. 그의 경직된 인과성에 대한 비판은 기무라 간의 비판적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역사는 ‘현재’가 그렇듯 ‘방대한 시간’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란 결국, 무한한 존재인 ‘과거’라는 ‘소재’에서 역사가들이 ‘모든 조건’들을 추출하여 이를 추상화하고 배열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²³⁾ 따라서 그는 자료의 존재여부나 그것에 대한 해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천명에 비해 저서는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역사적 자료들에 의지하고 있다. 물론 그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역사가들이 좋아하는 공식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증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저서가 마치 문화기술지와 같이 분석보다 묘사에 치중했다는 점은, 항상 어떠한 결정변수와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좋아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는 다소 허무함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함조차도 애당초 저자가 의도한 것이라면, 저서는 소기의 목적을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저서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풍부한 객관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한 챕터 분량에 해당하는 50쪽이 넘는 참고문헌의 양적 방대함, 국문 자료뿐만 아니라 영문 자료, 중문 자료, 일문 자료 등 외국의 자료들까지 아우르는 질적 다양성은, 기존의 연구 대상으로 잘 주목되지 않았던 만주에 대해 독자에게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10

22) 본서, 72쪽.

23) 기무라 간, 2007, 409쪽.

년 이상의 기간이 할애된 노작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저서는 다양한 1차 자료, 2차 자료들을 정리해줌으로써 만주 연구의 계보학의 차원에서 이미 학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은 공간적 지평을 더 넓혀 동아시아라는 큰 맥락 속에서 한국의 근대화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식민지의 영향,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또는 발전체제의 성립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한반도 또는 남한이라는 지정학적 범위 안에서만 그 기원 또는 영향을 파악해왔다.²⁴⁾ 그런 점에서 저서는 한국 근대화 또는 발전국가의 기원을 찾는 작업의 범위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범위를 넘어서, 만주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전체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 저서가 갖는 의의는 절대 퇴색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저서는 근 100년의 한국의 근현대사의 성격 논쟁과 관련된 가장 첨예한 두 논의, 즉 식민지 근대화론과 발전국가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는 수많은 함의들을 품고 있다. 물론 저자의 입장은 “역사학을 포함해 학문이란 도덕적이거나 인본주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²⁵⁾ 즉, 판단의 유보이다. 그러나 저서는 판단을 유예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첨예한 논점들을 건드리는 미끼들을 던지고 있다. 독자로서는, 여러 첨예한 논쟁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숨겨버리고, 그 스스로 회색지대로 후퇴해 버린 저자에 대해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24) 국민국가 틀에 근거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범위에 한정된 연구들은 국가(state) 외의 다양한 수준의 지역(local), 국제(global) 행위자들을 놓치는 문제를 노정한다(박배균. 2012).

25) 본서, 45쪽.

[참고문헌]

- 국민호. 1999.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전남대학교출판부
- 기무라 간, 2007.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의식: 조공국에서 국민국가로』. (김세덕 옮김) 산치럼.
- 김일영. 2003. 『건국과 부국』. 서울: 생각의나무.
- 김진균·정근식 편저,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 윤상우. 2006.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 『경제와사회』 72: 69~94.
- 전상인. 1998.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권: 124-137.
- 조동성 외. 2003.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월간조선사.
- 좌승희. 2006. “한국경제의 도약과 정체, 향후 과제,” 김용서 외 편.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현대.
-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g, Ha-Joon, 2006.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 Zed Books.
- Chibber, Vivek. 1999. “Building a Developmental State: The Korean Case Reconsidered,” *Politics and Society*, Vol 27 No. 3.
- _____, 2003. *Locked in Places: State-Building an Late Industrialization in Ind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son, Chalmers, 1985. “Political Institu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n Economic Development: Present and Future*. Robert Scalapino et al.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Koo, Hagen. 1987. “The Interplay of State, Social Class, and World System in East Asian Development: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C.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65~181.
- Lew, Seok-Choon, 2013.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son, Edward, Mahn Je Kim, Dwight H. Perkins, Kwang Suk Kim, and David C. Cole. 1980.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n, Jang-Sup & Chang, Ha-Joon, 2003, *Restructuring Korea Inc.*, Routledge Curzon.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o-Cumings, Meredith.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CA: Cornell University Press.